

# 현대 선시의 언어적 분석 연구

신희삼  
(동신대학교)

**Shin, Hee-sam. (2013). A Study on the Linguistic Analysis of Contemporary Zen Poem.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1), 117-137.** Literature is the art of language. Thus, literature is influenced greatly by the structure of the language. Zen is the dimension of the religion, while the poetry is the dimension of the literature. Zen poetry is a genre of unique modern contemporary poetry. In other words, modern zen poetry must be a sub-genre of contemporary poetry. Modern zen poetry has inherited the principles of reason and zen shapes. In addition, the language of zen poetry is implicit, conflict, and contradictory. The approach to analyze the language of poetry can be based on its phonology, morphology, syntax, and semantics. In this paper, the linguistic analysis of the poetic items is focused on verse line, tautology, word chain, honorification, metonymy, antonym, idiolect, rhyme, and delicate consonant. In order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linguistic analysis, we need to find a more thorough and systematic way, in which we define a common denominator to accommodate both the writer and the reader with emphasis on the areas of vocabulary and meaning.

**주제어(Key Words):** 선시(zen poetry), 연과 행(verse line), 동음반복(tautology), 단어 연쇄(word chain), 경어법(honorification), 환유(metonymy), 대립어(antonym), 개언어(idiolect), 압운(rhyme), 여린음(delicate consonant)

## 1. 서론

문학은 언어 예술이기에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 대한 언어적 분석은 작품의 이해와 해석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문학작품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한다. 문체론적 층위에서 행해지는 언어적 평가는 문예 비평가들의 평가와 전혀 엇나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선시는 내용상으로는 선사상을 시적으로 표현한 언어양식이다. 선시는 선과 시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선은 종교적 차원이고, 시는 문학의 차원이다. 현대 선시는 현대시의 독특한 장르로 볼 수 있다. 현대 선시는 선적 깨달음과 비논리적 양상이라는 특성으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 선시의 연구 방법으로는 비교문학적 연구, 수사학적 연구, 사상적 형식적 차원의 연구 등이 있다. 현대 선시를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현대 선시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문체 분석에 관한 언어적 방법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판적 견해로 통계학적 방법에 대한 지적이 그것이다. 통계학적 방법의 비판근거로 순환론적 언어기술, 통계적 자료의 임의적 추론을 들고 있다. 또한 언어 구조 위주의 분석은 문체 특유의 인상적이며 감각적인 속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 견해이다. 곧 시를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거 문예 비평 과정에서 나타난 비약이나 불충분한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언어적 분석은 시를 위축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생동감 있고 새롭게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두 가지 견해가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시는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분석이 현대 선시의 가치를 재조명해서 문단의 전문가나 독자들에게 시 해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것 자체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sup>1)</sup>

여기에서는 현대 선시의 개념과 특성을 밝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시에서 어느 것이 선시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현대 선시에 관한 언어적 분석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본문에서 다루는 현대 선시는 한용운, 고은, 서정주, 조지훈, 오규원, 성기조, 김철 등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언어적 분석의 범위는 선시의 내용과 형식에 맞는 것으로 간추려 선정하였다.

## 2. 현대 선시의 개념과 특성

현대 선시는 현대시의 하위 장르로 보아야 한다. 현대 선시는 선적 사유와 형상화의 원리를 계승하고 있다. 대개 선시의 언어는 함축적, 대립적, 모순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인 고전 선시는 발신자인 선사로부터 수신자인 제자에게 선리와 개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안정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유지한다. 반면에 현대 선시는 직접적인 선적 깨달음보다는 선적인 사유, 선적 발상법 등을 시에 원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고전 선시는 시선일여를 중심으로 하지만, 현대 선시는 풍부한 상징성, 함축적 의미의 다양성 등에

1) 신희삼(2006)은 '한용운 시의 언어적 분석'을 통해 시 분석에 있어서 언어적 분석의 이점들을 제시한 바 있다.

서 현대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즉 현대 선시는 선적 사유나 시적 발상법 등에서 현대시와의 유사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sup>2)</sup>

현대 선시는 선의 교리보다는 시적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선적 사유의 원리를 계승한 것이 많고, 형식상으로는 모순어법을 사용하는 등 전통의 선시와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선적인 사유나, 사물에 대한 투철한 인식능력,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감각 등이 선과 시의 공통점이라고 본다. 본래 선가의 언어관은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가의 언어는 압축, 절연, 비유, 고도상징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3)</sup> 이러한 선가의 언어가 시의 언어와 유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시에서 투철한 인식능력을 가지고 본질을 꿰뚫는 예리한 감각으로 창조된 시어는 선감각의 시와 유사하다. 즉 선과 시는 정신적 원천 차원에서는 상통하기 때문에 상상력, 관찰력, 투시력 등에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4)</sup>

선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이다. 이는 선의 입장에서 시를 수용하는 경우인데, 선시는 선가들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노래는 시라는 말이 있듯이 내면의 감정이 묻어나오는 선가의 노래는 여러 단계의 정제과정을 통해 시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의 입장에서 선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들 수 있는데, 유명 시인들을 비롯해 현재 선시 경향을 띠는 작품들을 배출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말한다. 이는 선가는 아니지만 불교적 영향이나 혹은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시에 영향을 미쳐 탄생하는 작품들을 말한다.

현대 선시는 이 두 가지 경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용운, 고은, 서정주, 조지훈, 김철 등은 선의 교리와 시의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킨 시인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이승훈, 김춘수, 성기조, 정현중, 오규원 등은 시의 기능 쪽에 무게가 실린 시인으로 보인다.<sup>5)</sup>

2) 서덕주(2004:17)는 현대 선시의 선택준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선불교, 불교와의 밀접한 관련성 2. 불교적 발상법, 3. 선적 인식과 선시의 기법 활용.

3) 선가 언어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모순어법은 스스로 깨친 세계를 문자로 보여주어 미혹한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반상합도는 우리가 정상이라 규정하는 일상을 돌이키고 뒤돌아서 정상과 비정상이 융통하고 회감하여 수승된 다른 세계로 보여주는 것. 곧 서로 다른 것이 상호 합일되어 고차원의 세계에서 합일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종의 정반합이라고 볼 수 있다. 초월은유는 동일성의 치환은유와 비동일성의 병치은유를 말한다.(송준영 2006:12-13)

4) 육근웅(2003)은 선시가 언어를 다루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설명의 시로서 선리시와 선전시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해체의 시로 범주해체, 논리해체, 전통해체, 상황해체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자유의 시 개념이다.

5) 한용운, 고은, 서정주, 조지훈, 김철을 선가와 관계 깊은 시인들로 분류한 것은 이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선 세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용운은 선승이고, 고은 또한 상좌승 시절에 선을 수행다가 환속하였다. 서정주와 조지훈은 해회불교 전문학교를 수학했으며, 조지훈은 월정사에서 은거를 하였다. 현대시와 선의 미

그러나 내용적으로 선시와 현대시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시는 주로 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창작된 시로 범주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선가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의 분위기나 내용 등에서 이들 선시와 유사한 것을 포함해서 현대 선시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 3. 언어적 분석의 의의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은 작품을 망쳐버린다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제대로 된 분석은 작품에 생동성을 부여하고 그 작품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에 대한 언어적 접근 방법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한편으로 성공적인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시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방법에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 등의 방법이 있다. 이를 세분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음운론에서는 자음, 모음, 음절, 비음, 유음, 여린음 등이 있고, 형태론에서는 형태소, 품사 등이 있고, 통사론에서는 경어법, 문답법 등이 있고, 의미론에서는 비유법, 단어 의미관계, 문장 의미관계 등이 있고, 어휘론에서는, 반복, 단어 연쇄 등이 있다. 또한 접근 방법에 따라 통계학적 방법과 비통계학적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어적 분석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통계적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그것이다. 통계적 방법에서 통계자료에 대한 언어 기술이, 많은 경우 순환론적으로 흐른다는 것이 그것이다.<sup>6)</sup>

이에 반해 언어적 분석이 문체 연구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있다. 심재기(1976:1214)는 시작품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적극지지하고 있다. 언어적 분석의 장점으로 과거 작품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약이 있거나 불충분했던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시의 특성을 시 아닌 것에서 분리하여 설명하려는 입장에서는 시 문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가 언어학자의 판단에 의해서 해명될 수 있는 것

---

학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김철은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으로 선무도를 수련하면서 시인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 시집에 '안개새 되어' 가 있다. 이승훈, 김춘수, 성기조, 정현종, 오규원 등은 선과 직접 관련이 없이, 다만 그들의 작품이 선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으므로 시의 기능 쪽으로 분류하였다.

6) 노명완(1994:215-222)은 통계적 수치 자료, 특히 통사적 자료로부터의 해석이 자칫 근거가 빈약한 임의의 추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체 연구에서 언어적 접근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로 문법의 형식이 의미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체에서 얻게 되는 인상적이며 감각적인 속성은 언어구조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은 시의 이해를 위해 다행스럽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 문법이라는 것을 시에 적용되는 모든 언어적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현대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 문법은 현대 선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 선시의 언어적 분석방법은 현대시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 한편으로 시의 언어적 분석이 시 자체를 망쳐버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 김진우(1985:369)는 다음과 같이 명쾌한 대답을 내놓았다. 문학의 분석은 나비를 잡아서 마분지 위에 핀으로 꽃아 놓고 세밀히 관찰해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없다. 문학의 분석은 나는 나비를 사진으로 찍어서 나는 동작을 순간적으로 고정화시켜서 이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작품 분석은 그 작품에 생동성을 부여하고 그 작품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이는 현대 선시에 대한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여기에서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기준은 작품 본래의 생동성이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대 선시가 선과 시의 양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현대 선시에 관한 관심을 집중하여 새로운 시의 부흥기를 여는데 일조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현대 선시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언어적 특징으로는 경어체 사용, 반복법, 연쇄법, 환유적 표현, 연과 행, 대립어, 압운, 여린음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 4. 분석의 실제

언어학자들의 문체 연구는 문예 비평가들과는 달리 기술적인 면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그 결과 문예 비평가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문체 연구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으로 이끄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선시에 알맞은 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각 분야별 세부 사항은 선시의 해석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 4.1 연과 행

연과 행은 시와 다른 담화 양식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규원(1990)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낱말풀이를 시의 형태와 유사하게 행을 나누어 적음으로써 단순한 산문적 진술이 시적 울림을 지니게 되는 것에서 잘 나와 있다. 행과 연의 구분은 시의 가장 중요한 문체적 특징이다. 이런 면에서 산문으로 된 불교의 교리를 시의 형태를 빌어 표현한 선시가 글의 내용과 느낌을 파악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다. 대체적으로 선시는 한 개의 연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시에서 연이 많아지면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불교적인 교리를 시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되 지나친

문학적 비약을 피하고자 하는 면에서 한 개의 연으로 형식이 선택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마지막 한 행을 연으로 나누는 독특한 구조가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는 마지막에 크게 깨달음을 주고, 혹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것과 통한다.

(1) ① 문 앞까지 달려와

문열고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다  
사라지는 것

자취가 없다  
-성기조 「바람」 전문

② 저문 산더러

너는 뭐냐

너 뭐냐 뭐냐.....  
-고은, 「메아리」 전문

③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해 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오규원, 「4월과 아침」 전문

위 (1)의 ①, ②, ③은 모두 마지막 한 행에 의미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선가의 화두, 깨달음, 각성의 외침 등과 연관시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선문답의 형식과 많이 유사하다.

선문답의 기본구조는 이것이 무엇이나 혹은 이 둘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로 실현된다. 선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문답이 오가고, 결국에는 큰 깨달음을 얻든가 아니면 다시금 존재론적 의문에 사로잡히든가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선문답은 마지막 부분에서 돌발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돌발적 역전 현상을 시적 장치로 변용시킨 것이 바로 위와 같은 형식이다. 곧 마지막 하나의 행을 연으로 분리하여 의미의 집중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4.2 동음반복

음의 반복은 운율감을 형성한다. 반복에는 자음, 모음의 반복, 음절의 반복, 어사의 반복, 문장의 반복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어사의 반복<sup>7)</sup>을 다루기로 한다. 동음의 반복은 의미의 깊이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특히 선시의 경우는 의미의 심화나 상상력의 극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음 반복을 많이 사용한다.

(2) ① 사랑의 속박(束縛)이 꿈이라면  
 출세의 해탈(解脫)도 꿈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무심(無心)의 광명도 꿈입니다.  
 일체 만법(一切萬法)이 꿈이라면  
 사랑의 꿈에서 불멸을 얻겠습니다.  
 -한용운, 「꿈이라면」 전문

② 너는 꽃에 붉은 것이 너냐  
 너는 잎에 푸른 것이 너냐  
 너는 단풍에 취한 것이 너냐  
 너는 백설에 깨인 것이 너냐  
 -한용운, 「금강산」 부분

③ 이제까지  
 내가 네놈한테 실컷 맞았다  
 이제부터  
 네놈이 내 방망이 맞는다.  
 어이쿠!  
 멧집 좋다  
 어이쿠!  
 어이쿠!  
 법화경 도망쳤다 농사꾼 떠난 들 넓다  
 -고은, 「법화경」 전문

①은 '꿈이라면 꿈입니다. 라는 구절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7) 어사의 반복이란 어절의 반복을 말한다. 대개 시에서의 반복이란 어절 단위인 경우가 많다.

또한 문답을 통한 가정법을 사용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적 사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동음 반복은 작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작자의 다른 작품 '알 수 없어요' 에 나오는 경어체 어구와 의문형 어구의 반복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강렬하고 끝없는 탐구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역설적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②는 '너나라는 말을 행의 끝에 배치함으로써, 존재론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계속하고 있다. 선에서 깨달음은 이러한 존재론적 의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을 가지는데, 이러한 끝없는 깨달음에 대한 추구는 반복이라는 시적 장치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③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이쿠!'라는 외마디 시어다. '어이쿠'는 각성의 표지로서 기능을 하는데 거듭 반복을 통해 치열한 깨달음 혹은 아무도 없는 꿈의 세계 등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4.3 단어 연쇄

심재기(1976)는 단어의 연쇄는 사물과 언어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민첩한 변화 방식이 곧 시로서 선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단어 연쇄는 선시의 이중성이나 윤희사상 등을 표현하는데 뛰어나 효과를 발휘한다.

- (3) ① 님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저 하여요  
 잊고저 할수록 생각하기로  
 행여 잊힐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 한용운, 「나는 잊고저」 부분

- ②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내가  
 호수가 되면



호수는  
연꽃이 되고

연꽃은  
돌이 되고

-서정주, 「내가 돌이 되면」 전문

- ③ 연꽃 옆에 물고기 있고 물고기  
옆에 게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거북이가 한 세상이네 거북이  
옆에 개구리도 있네. 바람자면  
바람이 그대로 거북이 바람이  
그대로 물고기 저 물고기 하늘  
을 나는 물고기 연꽃과 연꽃  
사이에 한 세상이 있네.  
-이승훈, 「연꽃 옆에」 전문

①은 '생각하다→있다→생각하다→있다' 의 연쇄를 통해 님 혹은 절대자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역시 선가의 존재론적 의문이라 하겠다. 이러한 존재론적 의문은 단어 연쇄에 의해 그 깊이를 더하고 있다. 단어 연쇄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마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②는 '나→돌→연꽃→호수→연꽃→돌' 연쇄를 통해 윤희사상을 암시하는 선적인 분위기를 잘 표출하고 있다. 윤희적인 것은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다. 불교적인 공과 업에 의해 그 형상은 언제든지 바뀔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이 되기도 하고 다시 연꽃이 되며 호수가 되고 다시 연꽃이 되고 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③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돋보인다. '연꽃→물고기→게→거북이→개구리→바람→거북이→물고기→연꽃'의 연쇄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과 끝을 연꽃으로 함으로써 불교적 세계관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작품 역시 반복과 연쇄를 통해 선적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단어 연쇄 효과는 선적으로는 무아의 끊임없는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적 언어와 선적 사유의 절묘한 조화는 바로 이러한 전통 선시의 극한의 상상력과 사유의 확장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 단어 연쇄는 내용과 형식이 유사한 경우에 잘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윤희론적 세계관이나 정도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4.4 경어법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서 상대경어법은 작품의 구성과 주제의 형상화, 분위기의 형성에 관여한다고 인식되어 왔다.<sup>8)</sup> 특히 시에서 극존칭 사용은 작자와 독자 사이에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어 인간이나 절대자에게 호소하는 시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선시에서도 경어법의 문체가 많이 쓰이고 있다.

##### (4) ① 부처님

큰 깨달음은 당신의 몫이구요  
 중생은 그나마도 드문 자질구레한  
 깨달음으로 징검다리를 삼기에도  
 어려운 물살입니다  
 가령 무슨 이념 무슨 주장 무슨  
 파당 무슨 조직에 앞서는 게  
 눈앞의 사람 아닙니까.  
 우선 그냥 한 사람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기가 스스로 죽지 않고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저 깨달음 놀이지요  
 제 짐작이요만  
 迷妄은 생명의 떡이요  
 꽃 한 송이는  
 迷妄의 우주니까요.  
 그러니 부처님  
 그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살아 있는 한 저는  
 깨닫지 않겠다고요.  
 합장.  
 -정현중, 「깨달음, 덧없는 깨달음」 전문

8) 경어법에 대한 문체의 논의는 상대경어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상대경어법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글에서도 청자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글의 상대경어법은 구어의 상대경어법보다 엄격하다. 글의 경어법은 글의 유형을 특징 짓고, 글의 주제를 실현하는 문체적 요소로 작용한다. (장경희:1994-88)

② 그간 몸통 속 내장이란 내장은  
 줄일 대로 줄였습니다.  
 하마 3분의 2쯤  
 그간 몸통 속 뺏속까지  
 줄여서  
 텅 비워두었습니다  
 -고은, 「히말라야의 학」부분

③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진들 하나 모래알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탑을 어  
 루만질 때 손 끝에 묻는 그 가루 같이 슬프게 보드라운 가루가 되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조지훈, 「염원」 부분

④ 지낸 밤 꿈에 나는 어느 산의 낭떠러지 아래 못물가에서 낮모르는 少年과  
 함께 바윗돌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못물가엔 한 그루의 감나무가 있어,  
 그 반쯤 붉은 뜨런 열매들을 물우에 기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여 내 꿈과 생시는 늘 이와 같이 있게 하소서.

-서정주, 「祈禱2」 전문

①은 부처님에게 하소연하는 작자의 심정을 경어체를 사용해 보여주고 있다. 하소연 하  
 는 대상이 부처이고, 작자의 강한 결심을 표현하는 데에 경어체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② ③ ④는 평소 경어체를 쓰지 않는 작가들이 드물게 경어체로 쓴 작품들이다. 이 작품  
 은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③의 조지훈 작품 또한 대부분 비경어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경어체를 사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어체의 사용은 인간적 염원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작자의 단호한  
 어조를 나타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④의 서정주 작품 역시 경어체로 쓰인 드문 작품이다. 온갖 번뇌가 사라진 관조의 세계,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간절한 염원은 이와 같은 경어체 문체가 잘 어울린다.

#### 4.5 환유

선가에서는 절대적 세계를 상대적 언어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압축, 비  
 약, 비유, 고도의 상징 언어를 사용한다. 환유는 이러한 선시의 언어 특성과 잘 어울리는 비

유법이다.

환유는 비유법의 하나로 한 실재물의 이름을 인접한 다른 실재물을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환유는 지칭기능과 인접기능을 가지고 있다. 환유의 과정은 상당히 체계적이며, 생산적이다. 환유는 부분과 전체로서 사물이나 사건을 용이하게 파악하는 인지기제이다. 환유는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있다. 유용하게 인지적이고 의사소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는 확대지칭양상과 축소지칭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sup>9)</sup>.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환유는 은유보다 더 기본적이고 의미확장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본다. 즉 환유는 은유에 비하여 훨씬 기본적이다. 그것은 두 사물이 인접해 있음으로써 의미적 연상 곧 의미전이의 신속성과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러하다. 환유에서는 화자 청자 사이에 전체의 어떤 부분이 지칭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이치에 어긋나는 듯한 표현이 화자 청자 사이에 무리 없이 사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환유에 의한 언어표현의 묘미이다. 이러한 환유의 속성은 선가의 언어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시나 선문답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환유는 사건 사고의 모든 진술 대신 불충분, 비약, 역설 등을 통하여 말을 꾸미고, 이런 진술과 담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sup>10)</sup>

(5) ① 이 텅하니 비인 새벽의

공간을  
조용히 흔드는  
종소리  
너 향기로운  
과실이여  
-조지훈, 「梵鐘」 부분

② 산은 산이라고

물은 물이라고 大應이 노래했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고 大應이 노래했다.

9) 확대 지칭 양상: 부분이 전체를 나타냄. 손-일꾼, 새얼굴-사람

축소지칭양상: 전체가 부분을 나타냄. 윤동주-윤동주의 시, 아침-아침밥(임지룡, 1997:193-201)

10) 환유는 인지상으로 매우 기본적이며 의미확장의 근간이 된다. 그 중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확대 지칭의 원리는 레이콕의 환유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전체에서 부분으로 좁혀지는 축소지칭원리는 랑카커의 활성지역/모습의 불일치 및 참조점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환유는 부분과 전체로서 사물이나 사건을 용이하게 파악하는 인지기제로 이해된다.(임지룡1997:214)

밥 먹어라  
 밥 먹었으면 똥 내놔  
 -고은, 「산은 산」 전문

③ 따슨 빛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린다.  
 구태여 꽃 밑 글자를  
 읽어 무삼하리오  
 -한용운, 「春畵」 부분

④ 바람이 자고 있네요. 그 곁에  
 낮달도 자고 있네요  
 남쪽 바닷가 소음을  
 귀 작은 나귀가 가고 있네요  
 패랭이꽃이 피어 있네요  
 머나먼 하늘, 도요새 우는  
 명아주여귀꽃도 피어 있네요  
 -김춘수, 「깜냥」 전문

①은 반야사상으로 본 종소리의 참 의미를 주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은 산사의 종을 나타낸다.

②에서 ‘산’과 ‘물’은 색의 세계이면서 공의 세계를 가리킨다. 선가에서 전통적으로 즐겨 인용하는 비유의 대상이다. ‘밥’과 ‘똥’은 일상생활을 가리킨다. 곧 일상생활이 선이고 선이 일상생활이라는 선가의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③은 선의 세계를 시화한 것으로 ‘유마경’은 불교 교리를 말한다. ‘글자’는 버려야 할 찌꺼기를 가리키고, ‘꽃’은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선적 관점에서 글자와 꽃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곧 글자를 이용해 표현하되 결국 그 글자마저도 부정하는 선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④에서 ‘바람’은 변하기 쉬운 인간의 마음 혹은 어디든 가고픈 자유 의지를 상징한다. ‘패랭이꽃’, ‘명아주여귀꽃’에서 ‘꽃’은 일상적인 자연의 대표적 표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낮달’이다. 낮달은 주위의 밝은 빛 때문에 존재감이 없다. 곧 존재감이 없는 무력한 나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평온한 정경의 배경이 된다. 자기를 죽이는 것을 통

해 봄날, 나귀의 방울소리, 도요새, 명아주여귀꽃 등과 같은 주위 사물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가의 일상선과 통하는 점이 있다.

#### 4.6 대립어

대립어는 의미 특성에 있어서 동질성과 이질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곧 대립관계에 있는 두 어휘소는 공통된 특성을 많이 지님으로써 근접성을 가지고, 하나의 매개변수의 다름으로 의미의 소원성을 가진다. 선시에서도 이런 대립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sup>11)</sup>. 그것은 선시의 비논리성에 기인한다. 선시는 비논리적이면서도 가장 논리적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비논리적 혹은 대립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호 소통적이면서 논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선시의 본질과 통한다.

(6) ① 길에 그림자는 눕고 사내는 서 있다  
 앞으로 뻗은 길은 하늘로 들어가고 있다  
 사내는 그러나 길을 보지 않고 산을 보고  
 사내의 몸에는 허공이 달라붙어 있다  
 옷에 붙은 허공이 바람에 펄럭인다.  
 그림자는 그러나 길이 되어 있다  
 -오규원, 「길」 전문

② 새로 햇볕에 생겨 나와서  
 어둠 속에 날 가게 했으면

허나 나는 섰노라  
 앉아 계시는 釋迦의 곁에  
 허리에 찌그만 香囊을 차고

이 싸늘한 바위 속에서  
 날이 날마다 들이쉬고 내쉬이는  
 푸른 숨결은  
 아! 아직도 내것이로다  
 -서정주, 「석굴안관세음의 노래」 부분

11) 현대 선시의 언어들은 파르마존적 양가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함으로써 이미지를 확장하며 기표와 기의를 극적으로 더욱 벌여 놓고 있다.(서덕주, 2004:61)

- ③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여요  
 당신의 얼굴은 흑암이여요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이여요  
 -한용운, 「반비례」, 부분

- ④ 사랑의 束縛이 꿈이라면  
 出世의 解脫도 꿈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無心の 光明도 꿈입니다.  
 一切萬法이 꿈이라면  
 사랑의 꿈에서 不滅을 얻었습니다.  
 -한용운, 「꿈이라면」, 전문

①에서 ‘눅다/서다, 보지 않다/보다, 사내/그림자, 하늘/산’ 등이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내는 삶을 의미하는 산을 보고 있다. 그림자는 죽음에 대한 공허감을 상징하는데, 어느새 그림자가 길이 되어 버린다. 대립 관계를 이용해서 사물 자체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②에서 ‘햇볕/어둠, 서다/앉다, 들이쉬다/내쉬다’ 등이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 역시 선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중생을 상징하는 ‘어둠’, 깨달음에 다가가려는 몸짓은 서있는 ‘나’로 표현되고, 들숨과 날숨을 통해 존재의 감사를 전하고 있다.

③의 대립관계는 비논리적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전제되어야 하고, 얼굴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흑백이 전제되고, 그림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광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는 ‘웃음/눈물, 꿈/불멸’ 등과 같은 이원적 대립을 통해 선가의 역설적 사유를 표현하고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등이 그러한데, 이와 같은 대립어에 의한 표현은 한용운 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sup>12)</sup>

#### 4.7 개인어

개인어는 작가들이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가리킨다. 개인어의 양상은 작자의 의도나 작품의 경향을 파악하는 중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현대 선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12) 「찬송」에서는 뽕나무뿌리/산호, 義/황금, 얼음바다/봄바람 등이 나오고, 「나룻배」에서는 당신/나, 나룻배/행인, 밤/낮, 가다/오다 등이 나온다.(한용운,1991)

(7) ① 한용운

당신, 님, 침묵, 선사, 사랑, 유마경, 꽃, 연꽃

② 고은

부처님, 대장경, 법화경, 벽암록, 대응전, 중생, 소, 바위, 물

③ 조지훈-부처님, 달마, 혜가, 혜능, 서방정토, 목어, 님, 모란, 흙, 풀

④ 서정주

석가, 연화경, 모란꽃, 침묵, 바위, 낫잡, 눈물, 새벽, 아침, 들, 연꽃, 흙, 강

⑤ 김철

부처님, 송광사, 목어, 인연, 당신, 나, 수행, 선사,

⑥ 이승훈

연꽃, 물고기, 바람, 하늘

⑦ 김춘수

바람, 낫달, 하늘, 눈썹

위에 언급한 어휘들은 다시 선가의 어휘와 자연에 관한 어휘로 나눌 수 있다.<sup>13)</sup> 이 둘로 나누는 이유는 일상적 생활이 곧 깨달음의 생활이라는 선가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시에 나오는 어휘들은 대개 선과 직접 관련된 어휘이거나 아니면 일상을 나타내는 자연에 관한 언어가 대부분이다.

(8) ① 선가어휘

유형적: 감정-석가, 부처, 달마, 선사, 중생  
물고기, 소, 꽃, 연꽃, 모란(목단)

무감정-대장경, 유마경, 법화경, 벽암록, 대응전, 범종, 목어

13) 여기에 조사한 어휘 들은 각 시인들의 대표적인 선사에서 직관적으로 뽑은 것이다. 그러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무형적: 당신, 님, 침묵, 사랑, 인연, 수행

## ② 자연어휘

바위, 물, 흙, 새벽, 아침, 돌, 강, 바람, 하늘, 풀

①선가 어휘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적인 것은 사람과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데, 선적인 것과 연관이 깊다. ‘물고기’는 진리의 맑은 종소리를 멀리 수중세계에 사는 물고기 중생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이 무명의 어리석음을 벗고 지혜를 얻어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불교적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수행자로 하여금 늘 깨어 있어서 수도에 정진하라는 의미도 있다. ‘소’는 그 깨닫는 마음을 세부적으로 지칭할 때 많이 인용한다. ‘심우도’라고 하여 소는 우리들 중생들이 잃어버린 본래 면목인 참마음 자리(부처의 진여마음)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를 보았다는 것은 붕성을 찾은 초견성의 마음을 뜻하고, 소의 고삐를 잡고 등에 타고 집에 오는 것은 깨달음 마음이 요지부동 못 달아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꽃은 깨달음과 상서로움의 상징으로 쓰이며, 또한 환희와 승양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꽃은 마음과 부처와의 관계를 뜻한다. 연꽃은 진흙에서 나와서 물 위로 피어오른다. 그때 연꽃은 하나의 초월적 상징으로 진흙이 없다면 거기에 연꽃도 없다.

‘진흙은 연꽃 없이 존재할 수 있어도 연꽃은 진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음은 단 한 명의 부처도 없이 수백만 개가 존재할 수 있어도 부처는 이 모든 마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연꽃은 불교에서 깨달음과 지고지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모란’은 주로 연꽃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겉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나지 않아 벌과 나비가 모여들지 않는 부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②자연어휘는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의 일상성을 표현 하자면 자연 어휘가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 4.8 압운

음운적인 효과로 압운을 들 수 있는데, 압운이란 시행의 첫머리 또는 가운데와 끝에서 같은 음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시의 운율을 이루는 방법이다.

- (9) ①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내가  
호수가 되면

호수는  
연꽃이 되고

연꽃은  
돌이 되고  
- 서정주, 「내가 돌이 되면」 전문

②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波紋)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西風)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  
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根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丹粧)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 전문

③ 길에 그림자는 높고 사내는 서 있다  
앞으로 뻗은 길은 하늘로 들어가고 있다  
사내는 그러나 길을 보지 않고 산을 보고  
사내의 몸에는 허공이 달라붙어 있다  
옷에 붙은 허공이 바람에 펄럭인다.

그림자는 그러나 길이 되어 있다  
-오규원, 「길」 전문

①은 각 연의 끝이 ‘되면’과 ‘되고’로 되어 있다. 이는 내가 ‘-가 되면’ ‘-가 된다. 라는 가  
정법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선의 측면에서 보면 마치 선문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반복되는 압운의 특성과 윤회는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

②에서 1~5행은 각 행이 의문형으로 끝나고, 6행에서는 직설적 화법을 통해 제5행까지  
의 심상들을 종합하여 매듭을 짓고 있다. 즉, 님에 대한 절실한 소망을 강하게 함축하면서도  
평이한 말로 깊이 있는 뜻을 담고 있다.

③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작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다’라는 선가의 정신이 이 시에 잘 투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압운 ‘있다’로 인  
해 더욱 배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시의 특징인 경건함, 일상성, 윤회성 등이 압운의 장치에 의해서 효과를 더  
하고 있다.

#### 4.9 여린음 사용

여린음은 거센소리 된소리를 제외한, 예삿소리를 가리키는데, 통상적으로 작고, 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것을 말한다. 여린음은 여성적이다. 여성적인 정조는 기원 소망등과 통  
한다. 선시에서 깨달음에 대한 소망, 기원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로 여린음이 사용된다.

(10) ① 내려오셔요, 나의 마음이 자릿자릿하여요, 곧 내려오셔요.

사랑하는 님이여, 어찌 그렇게 높고 가는 나뭇가지 위에서 춤을 추셔요.

-한용운, 「錯認」 부분

② 비누는 가늘게 내리는 가랑비 가랑비 내리던 아침 그대와 길을 떠났지 비누를  
가방에 넣고 떠났던가? 오늘도 가랑비 온다. 가늘게 내리는 가랑비 밤이면 하  
얀 눈발 어둠 속에 비누가 반짝인다. 비누는 마루에 있고 거실에도 있고 화장  
실 거울 앞에 있지만 비누는 과연 어디 있는가? 비누는 씨앗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다 아마 추운 밤 깊은 산 속에 앉아 있으리라.

-이승훈, 「비누」 전문

①은 ‘짜릿짜릿’ 대신에 여린음 ‘자릿자릿’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적 정조에 알맞은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②는 음절 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여린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는 무와 유가 혼재된

공의 세계, 자유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주제로 되어 있다. 부드러운 여린음은 이러한 주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 5. 결론

지금까지 현대 선시를 언어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현대 선시는 현대시의 하위 장르로서 지속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언어적 연구는 기존의 문예적 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중요한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선시는 고전 선시의 특징인 선적 사유와 형상화의 원리를 계승하고 있다. 선시의 언어는 함축적, 대립적, 모순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선시는 선의 교리보다는 시적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선적 사유의 원리를 계승한 것이 많고, 형식상으로는 모순어법을 사용하는 등 전통의 선시와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선적인 사유나, 사물에 대한 투철한 인식능력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감각 등이 선과 시의 공통점이라고 본다. 좁은 의미로는 선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어진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둘째, 문학 작품에 대한 언어적 접근 방법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한편으로 성공적인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시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방법에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 등의 방법이 있다.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기준은 작품 본래의 생동성이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대 선시가 선과 시의 양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현대 선시에 관한 관심을 집중하여 새로운 시의 부흥기를 여는데 일조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분석의 항목으로는 연과 행, 동음반복, 단어 연쇄, 경어법, 환유, 대립어, 개인어, 압운, 여린음 등을 선정하여 고찰해 보았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언어적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면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작가와 독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정하고 어휘나 의미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인상 비평의 장점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고 은. (1991). *선시집 뭐냐*. 서울: 청하.  
 김기중. (2000). 시의 언어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7, 19-38.

- 김진우. (1985). *언어*. 서울: 탑출판사.
- 김 철. (1993). *안개새되어*. 서울: 시문학사.
- 노대규. (1998). *국어 의미론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노명완. (1994). 문체 연구와 심리, 박갑수(편) *국어문체론* (pp 208-225). 서울: 대한교과서.
- 박갑수. (2005). *국어문체론*. 서울: 대한교과서.
- 박재금. (2008). *한국 선시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서덕주. (2004). *현대 선시 텍스트의 생성과 해체성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서정주. (1998). *미당시전집*. 서울: 민음사.
- 송준영. (2006). *선시의 세계*. 서울: 푸른사상.
- 신희삼. (2006). 한용운 시의 언어적 분석 연구, *한국어 의미학* 20. 95-121.
- 심재기. (1976). 영산홍의 시문법적 분석. *언어*, 1(2), 1213-1227.
- 오규원. (1990). *현대시작법*,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육근웅. (2003). 선시, 언어로 언어 너머를 엿보는 해체시. *유심 여름호*, 514-547.
- 이유정. (1999). *현대시에 나타난 선시적 성격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장경희. (1994). 문체와 의미, 박갑수(편), *국어문체론* (pp 80-99). 서울: 대한교과서.
- 조지훈. (1973). *조지훈전집*. 서울: 일지사.
- 한용운. (1991). *한용운 시전집*. 서울: 문학사상사.
- Culler, J. (1998). 이만식 (역), *해체비평*. 서울: 현대미학사.
- Llewelyn, J. (1998). 서우석외 (공역), *데리다 해체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신희삼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520-714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번지

전화: 016-610-2383

이메일: heesam3@ dreamwiz.com

Received on December 31,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February 27, 2013

Accepted on March 8, 2013